

“낭만항구 목포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1천만 관광객 유치 앞장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

목포해상케이블카와 협약...전국 농협 목포 방문 견인 다양한 역사자원 등 활용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기여

“목포는 낭만항구의 매력을 가진 도시로 조합원의 선진지 견학시 맛과 멋의 도시 여행목표를 방문해 목포의 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이 목포시의 1천만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 귀감이 되고 있다. 박 조합장은 지난 9월18일 목포해상케이블카(주) 정인재 대표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목포시 1천만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협약은 전국의 농협 및 관계기관들의 해상케이블카 단체방문 시 관광 상품에 대한 제휴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박 조합장은 곧바로 대한민국 최대 금융기관인 농협과 조합원 214만명 등 농협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홍보에 들어갔다. 우선 홍보팀을 구성해 전국의 농협과 관련 단체에 조합원 견학 및 농협 임직원 행사에 목포 방문을 요청하는 자체 제작 리플릿과 전자우편 등 각종 홍보물을 발송했다. 농협 임직원 10명이 사용하는 내부 통신망에도 목포의 먹거리, 볼거리 등을 매일 올리며 홍보하고 있다. 또한 목포농협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으며 목포농협을 통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케이블카 현장에 직접 마중 나가 환영인사를 하며 안내하고 있다. 특히 박 조합장은 목포 1천만 관광객 유치 홍보 전도사를 자처하며 전국 1천118개 농협에 일일이 직접 전화 홍보하고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농협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목포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박 조합장이 다방면으로 홍보한 결과, 케이블카 개통 3개월여 만인 11월 말 현재 목포농협이 유치한 관광객은 5천500여명에 달한다. 목포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방문객도 700여명에 이르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정수 조합장은 “목포의 대표적인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해 맛과 멋과 낭만이 충만한 아름다운 항구도시 내 고장 목포를 전국 1천118개 농협과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또 “관광객 유입으로 목포시 관광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목포농협을 사랑하는 목포시민들의 애정에 보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조합장은 “홍보팀을 지속 운영해 목포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한 유달산, 근대역사 유적, 해양문화재연구소, 천사대교 등 목포의 주요 볼거리와 풍성하고 신선한 먹거리 등을 알려 내년에는 5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전남도 보조기기센터’ 개소

전남도는 12일 순천제일대학교에서 장애인의 개인·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를 위한 ‘전남도 보조기기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병욱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안효승 순천제일대학교 총장, 김철 부총장,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 보조기기센터는 지난 7월 공모사업을 통해 순천제일대학교가 선정돼 국비와 도비 각 1

억5천300만원 씩을 지원하고 대학이 3천만원을 부담해 설립됐다. 전시와 체험장, 상담실, 개조제작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전남도 보조기기센터는 상담 및 평가, 정보제공,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개조, 보조기기 체험 및 대여,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및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윈스톱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광주사회복지모금회, 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사업비 지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1일 지역아동센터 25개소에 2020년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비 7억9천100여만원을 지원했다.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보호사업으로 학습 및 문화체험 활동, 석식제공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야간보호교사 채용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석식 제공 및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해 제2의 가정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성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늦은 밤까지 경제활동으로 바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시교육청, 신규 지방공무원 학습공동체의 날 연수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올해 9월1일 이후 발령받은 신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현장 적응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했다. 신규 지방공무원 ‘학습공동체의 날’은 임용 초기 공식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함께하는 학습문

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교육청 핵심사업으로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사전에 신규 발령자 업무분장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업무분야를 연수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였다. /최권범기자

광주매일신문 최효은·신진희 차장 ‘올해의 기자상’ 우수상

광주매일신문 편집부 최효은·신진희 차장이 2019년 광주전남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신문 편집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 차장과 신 차장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22차례에 걸쳐 보도한 ‘남도의 명품마을을 찾아서’ 시리즈 기사를 통해 22개 시·군·별 각 마을의 특징과 이야기를 담은 감각적인 편집으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9 올해의 기자상에는 총 76편이 응모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한편,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은 오는 19일 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릴 기자의 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진다. /김재정기자

제33회 광주교육상 박봉순·표남수·이흥채씨 선정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6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제33회 광주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된 광주양동초 박봉순 교장, 상일중 표남수 교장, 금호평생교육관 이흥채 관장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광주교육상은 광주광역시 교육가족 중에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현장교육개선에 헌신·봉사하며 정열한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그 공을 기리고 교육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시상 제도로써 올해로 33회째 시행되고 있다. 박 교장은 탁월한 국악교육으로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학생 복지를 위한 아침식당 운영 등 헌신과 정열 행적으로 학교 문화혁신에 공헌했으며 교단 선진화를 통해 광주 정보교육에 기여했다. 표 교장은 학생들의 기본 능력 배양 및 진로 맞춤형 교육에 힘썼으며, 외국어 교육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 인재 양성에 크게



공헌했다. 학교업무정상화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광주 혁신학교의 기반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 관장은 ‘계약실무편람’, ‘감사업무 편람’ 등을 발간해 업무의 효율성 및 개선에 기여했으며, 학교 급식의 직영 운영 방식 도입 및 학교 급식 관련 심의 기준 강화 등으로 학교 급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이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시상식에서 “오직 교육만을 위해 열심히 걸어오신 세분의 발자취는 후배 교직원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치하할 예정이다. /최권범기자



‘2019 광주시 문화예술상’ 6개 부문 7명 수상

광주시는 지난 11일 ‘2019 광주시 문화예술상 시상식’을 열고 6개 부문에 선정된 7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광주시 문화예술상은 한국문화와 미술(한국화, 서양화), 국악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박용철, 김현승, 정소과, 허백련, 오지호,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이어받아 문화예술의 창조적 발전에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로

대상으로 해마다 수여하고 있다. 올해 박용철문학상에는 김동근(63·전남대학교 교수), 김현승문학상에는 허백련(시인), 정소과문학상에는 이한성(70·시인), 허백련미술상 본상에는 하성림(58·전업작가), 특별상에는 김병균(43·전업작가), 오지호미술상 본상에는 배동환(72·전업작가), 임방울국악상 특별상에는 정상희(41·국악인)씨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김중민기자



GTMBA 7기 원우회장 이·취임식 시트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제7기 원우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1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위드스퀘어홀에서 열렸다. 송년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 3년간 원우회를 이끌어 온 나승중 호진후 회장이 이임하고 김청환 도원걸후 대표이사기 새회장에 취임했다.

박성규 지스트 교수 ‘복지부장관상’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생명과학부 박성규 교수가 지난 10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2019년 보건 의료 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우수연구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보건 의료 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보건 의료 연구 개발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행사다. 박 교수는 다년간에 걸쳐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기술과 간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물개발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세계적 권위의 다수 학술지들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학문적인 연구성과 뿐 아니라 연구 실용화의 초석을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교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현재 개발중인 다양한 치료제 후보 기술의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들에 대한 적용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전남대, 박기수 한양대 교수 초청 강연



전남대학교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 양성 사업단(단장 신해진 국문학과 교수)은 13일 오후 2시 전남대 인문대2호관 408호에서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스토리텔링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그리고 기획’을 주제로 개최될 이번 초청 강연의 강사는 박기수 교수다. 박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스토리텔링의 유형과 특징,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개념 및 구조, 가치 있는 즐거운 체험과 기획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한양대 국제문화대학 문화콘텐츠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창의융합교육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문위원, 광주스토리텔링아카데미 전문가 위원장, 한국 콘텐츠진흥원 기획창작 아카데미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권범기자



광주축산농협, 신규조합원의 날 성료

광주축산농협(조합장 김호상)은 지난 10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최근 가입한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신규조합원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 조합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조합원의 역할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김호상 광주축산 조합장은 “새로운 축산 환경과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합원들의 양속 경영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들을 잘 전달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정도 경영과 실리주의 경영을 통해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철현기자

결혼

- 이상현(신성세탁소 대표)·정순덕씨 장남 관현(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합정건조감독관), 주윤돈·송영순씨 차녀 은지영(15일) 및 12시 30분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42(아이스퀘어 호텔) 아이스퀘어 더파티웨딩홀 4층 아모르홀.
- 조재운(전 나주시 부시장)·정은자씨 아들 창현(더블저축은행 근무), 김상윤(대준공사 대표)·정현자씨 장녀 민지영(21일) 오후 4시 광주 서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체웨딩컨벤션 3층 안젤로홀.

등문·동창회

-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2019년 정기총회 및 ‘조대인의 밤’ 송년행사=18일(수) 오후 6시 광주 S타워웨딩컨벤션(4층) 광주 서구 시청로 45(지평동 1238), 문의 조선대 총동창회 (062)228-0197-8.

행사

- 제3회 담양산타축제 개막식=13일(금) 오후 5시 30분 메타프로방스 주무대(산타방) 담양군 담양읍 깊은실길 2-17(담양읍 학동리 586-1), 문의 담양군 자치혁신국 녹색관광과(과장 고진성) 관광정책(061-380-3152).